

300-1-081. 신문조서(車今奉·安相勳·金鐵煥 외 8명 치안유지법 위반)

■ 車今奉·安相勳 외 10명과 金鐵煥사건의 신문조서 수록

- 車今奉은 1928년 3월 同志 李京鎬의 권유로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安光泉·金在明·李星泰 등과 회합하여 당 중앙위원 책임비서가 되어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하였으며, 李星泰를 국제공산당 상해국제위원회에 파견하여 당의 상황을 보고 하였으며, 여러 기부금을 사용하다 소재 불명이 되어 기소중지가 되었다. 그 후 구속되어 3회의 피의자 신문조사 후 송치되어 검사의 신문조사중이던 西大門교도소 수감시에 전염병(장티푸스病)에 감염되었다. 사건은 검사의 예심청구가 있었으나, 형사 피고인 車今奉의 사망으로 예심이 종결되었다.
- 安相勳 외 8명은 朴熙道 등의 권유로 조선독립의 호기라 하여 고려공산당청년회와 조선공산당에 가입, 활동하였으며, 禮拜堂에서 밀의하고 독립선언서 배포와 선동선전에 노력하였고, 파고다공원 만세에 참가하고 군중선동 등을 하였다. 이들 宋武英·李駿烈·方漢旻·鄭憲台·朱允興·朴昇龍·閔丙曾·全成淑·方相垌·李昌植·黃大用·朴泰善·許貞淑·李敏用·安相勳 등은 검거 후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,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를 각각 2회 이상 받았고,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.
- 金鐵煥은 東京 와세다(早稻田)大學 專門部 政治經濟科에 입학하였으나 關東大震災로退學하여 한일은행 元山支店에 근무하고, 그 후 東一銀行 관훈동지점에 근무 하면서 신간회 元山支會를 창립하여 집행위원, 서기장을 역임하면서 조선독립·공산사회 건설을 시도하며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을 조직하고 또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를 조직하는 등 활동하였다. 관련자의 判決선고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이다. 피고 金炯璣, 尹茲瑛 징역 1년, 金栢稔·李奎宋·張基郁·金用熙·李寅永·李龍在 징역 10월, 金鐵煥·朴寅玉·朴快仁 징역 8월, 金東煥·梁好甲·金鐸遠·崔景阿·朴潤夏·姜日永·金大羽·成俊燮·朱鐘宣·李公厚·李仁植·南廷彩·俞極老 등은 징역 7년에 처했다. 理由文에 각자의 범죄사실이 명기되어 있다.